KR 상생뉴스

금정터널 소방방재관련 MOU체결

영남본부(본부장 정재우)는 지난 10일 부산시 소방본부,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와 금정터널 재난 발생시 공동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부산시 소방본부 주관으로 열린 협약식은 정재우 본부장을 비롯해 부산시 이동성 소방본부장, 철도공사 강해신 본부장 등 3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 ▲ 화재 등 유사시 기술지원 및 사고대응장비 지원 ▲ 화재예방 · 응급처치 등 상황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 화재피해 저감대책 추진 협조 등 재난대비 능력강화는 물론 적극적인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 1주년 효과

– 일일 이용자 24,461명 증가, 경제적 순효과 4,460억원 발생 –

기획혁신본부 녹색사업전략처(노병국 처장)은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 1주년 기념 세미나를 공단과 한국교통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하였다.

김광재 이사장은 환영사에서 경부고속철도 완전개통으로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서울~시흥)과 대전 · 대구 도심구간의 고속철도 전용선을 조기에 구축하고, 선로전환기 · 분기기의 시속 300km 검증 후 운행, KTX-산천 기술 및 Korail의 운영기술 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KTX 운행지연 방지 등으로 이용객 편의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주제발표자로 나선 이재훈 한국교통연구원 철도정책기술연구본부장은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에 따라 경부축 2시간대 철도서비스 범위가 총인구의 86.4%로 확대되고, 일일 고속철도 이용자 24,461명 증가, 년간 자동차 통행시간 절감편익 등 사회적 편익 3,810억원 및 경제적 순효과 4,460억원 발생 등으로 사회 ·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발표하였다.

아울러, 통행시간 단축이 클수록 지역경제 성장기여 효과는 상승하고 의료부문과 유통부문에서 서울집중 현상은 명확하지 않아 고속철도 빨대효과는 없다고 주장하였다.

또 고승영 서울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태 연구위원(한국문화관광연구원) 등 6명의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이 우리사회 전반에 미친 효과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경부고속철도 완전 개통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알아보고 앞으로의 발전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으며 관련 전문가 · 지자체 공무원 등 15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획혁신본부 진학기 기자〉

공단, 사회공헌활동 우수기관 선정

– 대전시장상(사회복지 기관부문) 수상 –

공단은 지난 11일 어린이재단이 주관하고 대전시가 후원하는 '사랑의 징검다리' 행사에서 대전시장상(사회복지 기관부문)을 수상하였다.

공단은 지난 2010년 전국의 철로변 소외계층 아동 120여명을 대상으로 'KR소년단'을 창단하여 임직원들의 자투리 급여로 조성한 사회공헌기금으로 매월 장학금을 지급하고, 철도사랑캠프 등 각종 문화행사를 개최하여 소외계층 아동들의 경제적, 정서적 지원에 앞장서왔다.

한편, 공단은 오는 2012년을 사회공헌활동 고도정착기로 정하고, 공단이 보유한 철도 인프라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계층별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지역사회가 요구하는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책임 경영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경영지원안전실 정지은 기자〉

서해선 복선전철 디자인 심의안 사전 검토회의 개최

– 지역의 자랑 거리인 명품 교량을 위하여 –

건설본부(본부장 김병호)는 지난 15일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중 교량 디자인심의에 앞서 설계의 내실화를 위하여 공단내 관련부서와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가졌다.

'디자인 심의안 사전 검토회의'는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구간내에 위치한 주요시설 횡단교량의 경관설계에 대하여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디자인심의[1] 전에 토목시공, 건축, 궤도 및 시스템분야 등 관련부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 맞춤형 명품 철도교량 탄생을 위해 공단내 각 분야별 담당자들이 모여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이는 그간 진행되어오던 통상적인 외부인력을 활용한 심의방식에서 벗어나 공단직원이 철도분야에선 최고 전문가라는 신념하에 착안한 방안으로, 회의를 진행하면서 심도있고 날카로운 질문과 다양한 대안제시로 이 자리에 참석하였던 설계사 관계자는 "특급 예방주사를 맞은..."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의미 있는 회의였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양성직 일반철도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철도의 주역은 공단, 설계사, 시공사 등 여기 참석한 모든 분들이지만, 철도의 주인은 철도를 이용하는 국민임을 명심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를 바꿔보겠다는 자세로 임해주기를 바란다"며 "사전검토회의는 변화하는 공단의 작은 발걸음이지만 이 작은 발내디딤이 큰 울림의 시작"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금번 회의로 서해선 복선전철 사업 중 설계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 순항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아울러 서해안 축의 물류를 책임지는 철도산업의 랜드마크 역할이 될 수 있는 명품철도교량의 탄생을 기대해 본다.

〈건설본부 지성욱 기자〉

1) 공단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지침에 의거 시행
심의대상 : 경간50m이상으로 주요하천, 고속국도 또는 국도와 병행하여 진행하거나 횡단하는 교량

품질 ·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 소개

–청렴 업무 및 KR Trends 안내 병행–

충청본부(본부장 이양상)는 지난 7일 대전도심 제6-3공구 상황실에서 감리단장, 현장대리인 등 41명과 함께 청렴 업무 및 철도건설현장 품질 ·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 소개 시간을 갖고,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건설을 다짐하였다.

본부는 이날 ▲KR 청렴도 및 충청본부 청렴도 현황과 개선안 ▲KR 업무 Trends 안내(원칙과 기준, 무재해 및 무부패, 품질과 안전 등 경영진의 지속경영 의지)▲CPMS/EPMS 공정실적의 철저한 적기관리 안내 ▲ KR 철도건설현장 품질 · 안전관리 체계 개선(안) 소개 등 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이양상 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그간의 관행을 타파하고 국민의 준엄한 요구사항인 편리하고 안전한 철도건설을 위해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다하면서 무부패, 무재해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 언론 홍보시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현장관리에 만전을 다해달라고 주문하였다.

〈충청본부 정영진 기자〉

KR - 가족과 함께 가고 싶은 곳

근대명품 한옥, 전주 학인당

전라북도 전주시에 자리한 한옥마을은 도심형 슬로시티이다. 이곳에 한옥마을이 형성된 것은 1930년경이다. 전주성곽을 해체한 일본인들이 전주객사가 있는 중앙동까지 상권을 넓혀오자 전주의 부호들과 유림들이 경기전과 향교가 있는 교동과 풍남동에 한옥마을을 형성한 것. 한옥마을의 집들이 대부분 이 시기에 지은 근대한옥인 이유이다.

전주한옥마을 안에 수많은 한옥들이 있지만 이곳을 대표하는 집은 근대 상류 가옥인 학인당이다. 이 집은 인재(忍齋) 백낙중이 1908년에 지었다. 건축에 사용된 나무들은 모두 압록강, 오대산 등지에서 가져왔고, 동원된 도편수와 목공 등 인부의 수만도 4000명이 넘었다. 건축기간도 2년 6개월이나 걸렸으니 집을 짓는 동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렸을 터이다. 게다가 이 집의 본채(전라북도민속자료 제8호)는 특이한 구조를 가졌다.

본채 앞 정원에는 지하로 내려서는 계단이 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딴샘이라 불리는 우물이 있다. 예전에는 이 물을 길어 식수로 사용했지만 지금은 물이 많지 않아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정원의 연못수로 사용하거나, 여름철 과일을 담가 시원하게 하는 용도로 사용한다. 우물의 가장자리까지 계단을 놓아 내려갈 수 있게 한 것이 특이하다.

학인당에는 본채 이외에 별당채와 사랑채가 있다. 두 건물은 여행자가 숙박할 수 있는 객실로 구성되었다. 객실은 단독 화장실을 갖춘 것이 대부분이지만 장작불을 때는 구들방에는 화장실이 있는 것이 좋지 않아 실내화장실을 만들지 않았다. 야외에 샤워장과 화장실을 만들어놓아 사용하기에 불편하지는 않다. 아침식사를 원할 경우, 채식으로 구성된 식사를 제공하며 본채 마루에 있는 선다원에서 차 한 잔 마시는 여유도 가질 수 있다.

한옥마을에는 학인당 이외에 동락원, 한옥생활체험관 등등의 한옥숙소가 있다. 동락원은 전주기전대학 부설기관으로 숙박도 가능하지만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미국 남장로교선교회의 선교사로 교육선교에 공헌을 한 전킨(W.M.Junkin)선교사를 기념하기 위해 그가 머물던 1895년 당시의 전주 모습대로 재현한 공간이 동락원이라고. 원래 이 자리엔 한국은행 관사가 있었다고 한다. 한복과 우리예절체험, 다례체험, 전주전통비빔밥체험, 인절미떡메, 소리체험, 한지공예, 김치체험 등 3~10명 이상이 신청하면 언제든 체험할 수 있다. 동락원 골목을 따라 가면 멀지 않은 곳에 전주시가 운영하고 있는 전주한옥생활체험관도 있으니 둘러보자.

〈레일&뉴스 유정우 기자〉

경조사

- 한국철도시설공단 최철처장 빙모상
  - 발인 : 2011년 11월 14일(월)
- 강원본부 건설처 강현구과장 결혼
  - 일시 : 2011년 11월 19일(토) 낮 12시
  - 장소 : W-CITY 컨벤션 센터 (원주시 시외버스터미널 5층)
- 강원본부 건설처 홍성진차장 장녀혼
  - 일시 : 2011년 11월 20일(일) 오전 11시
  - 장소 : 하나웨딩프라자 5층 사파이어홀 (제천시 소재)
- 이양상 충청본부장 장녀혼
  - 일시 : 2011년 11월 26일(토) 오후 3시
  - 장소 : 컨벤션 다아망 3층 그랜드볼룸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 강원본부 시설운영처 허정회차장 장녀혼
  - 일시 : 2011년 11월 26일(토) 오후 2시
  - 장소 : 전주시 효자동 웨딩캐슬 1층 시크릿가든홀

KR상생뉴스(주간) 발행인 김 광 재 편집인 김 재 규
발행일 2011. 11. 17(287호) 기사문의 (042) 607-3083